

2018
5.27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명성교회 청년부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www.ums.or.kr | 052-251-7991 | 동구 서부동 113-12 | Myungsung_Church | Myungsung young people community



젊은이 예배

* 는 일어서서 합니다

* 부르심과 고백

사랑해요

* 찬양

에벤에셀 찬양팀

* 회개와 예배기도

기도

고성신 목사

광고

김비손 형제

목장환영식&허그식

정효진 목장

봉헌

* 성경합독

전도서 2 : 18 ~ 26

강론

수고의 헛됨/김권수 목사

찬양과 기도

주님 곁으로

파송 및 축도

김권수 목사

축복송

다음주 기도

정예원 자매



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 1:5

모세에게도 닮아주었다.

하나님의 일이 두렵습니까?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Ref: <http://godpeople.com>

헌금 감사

● 감사합니다

후원선교사 : 왕선전 진실로 선교사 - 필리핀 / 권정현 한지숙 선교사 - 태국



예배사역

1.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와서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각금지)

2. GMS 2018 세계선교대회와 제 3대대교회 건축지원을 위한 선교헌금 : 6월 3일 (주일) 1,2,3부 예배시

3. 성찬식

6월 3일(주일) 1,2,3부 예배
*세례교인 이상 참석 바랍니다.

증거사역

1. 토요일새벽기도회 및 새벽전도
기도회 : 새벽 6:00 본당
전도 : 새벽 7:00 교회출발, KFC앞
• 전도 후 아침밥상교제가 있습니다.
• 토요일 새벽전도 담당

5월 26일 : 고성신/정호진 목장
6월 2일 : 김진우/김채원 목장
6월 9일 : 배상진/최성현 목장
6월 16일 : 조성호/정주은 목장
6월 30일 : 하재훈/배관수 목장
*김권수/박호성 목장은 자유롭게 참석합니다.

행사사역

1. 4차 전교인 성경통독수련회
일시 : 6월 23일 (토) 6:00 ~ 12:30

장소 : 비전센터 302호

범위 : 읍기-잠언

회비 : 5천원 (문의:김권수 목사)

*3차에 하신 분들은 모두 4차에 동참해 주시고 1~3차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추가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참석하신 사람에게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2. VIP 초청 2018년 봄 부흥성회

봄 부흥성회 : 5.28(월)~5.30(수) 새벽 5:00, 저녁 7:00 본당

주제: 다시! 일어서십시요!

강사 : 이승희목사

교제사역

1. 싱글 불링동아리 회원 모집

일시 : 매주 월 저녁 7:30 ~ 8:00

문의 : 강동혁 형제 (010-5382-4282)

2. 교회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놀이나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정교회

1. 목장 VIP

목장 VIP를 작성하시고 목장모임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자님들은 목장일지를 꼭 화요일 오전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유혜진	30	31 최성현 류진주	1	2
3	4	5	6	7 이보라 (박효성목장)	8 정소라 김명준	9
10	11	12	13	14	15	16 김지수
17	18 고은섭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재훈



송승욱 (이지형목장) 조석호(김채원목장)
배우영 (정효진목장) 김훈도(김채원목장)
고은섭 (고성신목장)
고규화 (하재훈목장)
송승엽 (조성호목장)



김미랑 스페인 (최성현목장)



목장 나눔지

3. 2018년 상반기 목장 이사만사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목장마다 영혼구원하
여 제자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목장별 VIP 명단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기도
합니다.(주보 7면 참조)
 - 목장별로 이사만사를 하신 후에 결과를 목
장일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목장 환영식 & 목장허그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식 : 최지우(정효진 목장)

허그식 : 오예림, 김승길 (정효진 목장)

5. 총 목자모임

6월 3일(주일) 싱글예배 후 사택

<6월 봉사위원>

헌금위원 - 김진우 목장

청소담당 - 김진우 목장 (301. 302. 3층복도)

1. 식사교제
2. 찬양 1곡
3. 아이스 브레이크
4. 광고 및 공지사항 전달하기
5. 목장회비 거두기
6. 올리브 블레싱
7. 말씀나누기 /전도서 2:16 - 28 /
성령충만

❖ 설교 요약하기

- 1)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를 계속해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 내 뒤에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3) 내가 수고한 것을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 4) 수고한 결과가 슬픔과 고생 뿐이기 때문입니다.
- 5) 먹고 마시고 일에 만족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 6) 먹고 마시는 기쁨과 일의 보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 성경문제예습 / 전도서 3:1 - 8
(주보 6면 참조)
9. 삶나누기 / 지난 한주를 살면서 감사한 것
10. 나의 vip 나누기 & 기도제목 나누기
11. 목자의 파송기도

부자는 핸디캡

어떤 사람은 언짢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자'를 보면 측은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이 영적 핸디캡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제목이 없습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교회생활에 흥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신앙이 있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19:2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다행히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중에는 남보다 몇배 더 노력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이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 하든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마19:25)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수 있다."(마 19:26)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부자이면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라는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자신을 더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가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18절에 내가 해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간에 해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내가 해아래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내가 계속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남겨주어서 헛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우리는 업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업적이 크다고 해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주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유한해서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둘째 또한 내 뒤에 이을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헛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자이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가 뒤를 이을 경우에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을 한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업을 더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우매자이면 아버지가 애써서 모아 놓은 재물을 도박과 술로 탕진하여서 결국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 놓는다 해서 그 돈을 내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없고 내 뒤에 이을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은 일을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므로 헛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일들을 후대에 물려주게 되는데 뒤를 이어 받은 사람은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헛된 일이고 큰 악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법칙인데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넷째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결과가 슬픔과 고생뿐이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1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죽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끝납니다. 하루라도 수고하지 않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울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다섯째 먹고 마시고 그의 일에 만족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입니다. 일에 대한 만족과 보람은 정신적인 만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즐겁고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만 즐거움을 느끼고 정신적인 보람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일의 보람과 만족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인간이 세상에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솔로몬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먹고 마시는 기쁨과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람도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경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에게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도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의 이 수고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졌든지 못가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Memo



성경문제 (전도서 3:1-8)

1. 범사에 ()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가 있나니

정답:

2. 날때가 있고 죽을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개가 있으며

정답: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가 있으며
울때가 있고 ()가 있으며 슬퍼할때가 있고 ()가 있으며

정답:

4. 돌을 던져 버릴때가 있고 돌을 거둘때가 있으며 ()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때가있으며

정답:

5. ()가 있고 잃을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때가 있으며 찢을때가 있고 꺾을때가
있으며 잠잠할때가 있고 ()가 있으며

정답:

6. 사랑할때가 있고 ()가 있으며 전쟁할때가 있고 평화할때가 있느니라

정답:

< 목상이 필요한 성경문제 >

●지난주 문제해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죄인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이 쌓아 놓은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번주 성경퀴즈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장까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몇가지 때를 이야기
하고있나요?

싱글평원 목장이사만사 VIP 명단

초원	목장	이사만사 날짜	vip
김권수초원	김권수목장	5월26일	정희영 이보람 권순석
	최성헌목장	5월27일	양동근 김부장님 정지상
	조성호목장	6월9일	이윤주 장기호 전병휘 윤현순 윤성빈 진주남자친구
	김채원목장	5월13일	이현지 김도연 유혜영 전지훈 최예진
심기욱초원	김진우목장	5월19일	최욱 이재진 이병찬 이현경 백왕현
	정주은목장	계획중	
	하재훈목장	5월19일	윤원형 신동식 박제형 원현우 박보영 도기태
	정효진목장	5월19일	정종원 추형호 조서현 전우현 김재광 김예찬 최성제 김나윤 박소미 여건구 김동현 이나연
박효성초원	박효성목장	계획중	
	배상진목장	5월20일	이유미 김수사 방채원 김민우 손유신
	배관수목장	5/19,5/26	권순민 임가혜 김권욱 정선우 김근호 윤양진 박민우
	고성신목장	계획중	

목장소개

김권수
초원



김권수 목장

손민정 김유진 정희영 김대홍 권순석 안미라
오재근 이보람 안승혜 함동재
기도후원 : 천강민 이정희(몽골)



김채원 목장

강범석 박덕호 주재혁 윤예원 전지훈 최예진
신에서 최지현 김유진 김민정 정현승 홍성원
성기범 김주혜 박종희
기도후원 : 강형석 김수희(태국)



최성현 목장

김진실 이주희 박현지 진영우 김철호 이상철
남영주 김선호 김미랑 이귀진 경수진 최윤지
기도후원 : 강희열 노성희(필리핀)



조성호 목장

유재민 전예리 남현규 류진주 송승엽 정지우
기도후원 : 양은희(캄보디아)

박호성
초원



박호성 목장

이보라 심주석 권현구 최은미 전의원 손성덕
기도후원 : 박노석 김영희(필리핀)



배상진 목장

정예원 김비손 이준원 김진웅 고성범 오대성
이원진 하혜민
기도후원 : 권정현 한지숙(태국)



배관수 목장

이진희 조지훈 이지훈 김태형 김세영 김경성
추미진 김지인 신준영 박혜영 문단비 홍다혜
기도후원 : 정창연 이복환(터키)



고성신 목장

이보라 방성현 유혜진 정소라 조성은 이정인
박경민 고은섭 이보람 장용환 김신혜 김연이
조현지 임시연
기도후원 : 임석일 정현진(라오스)

심기욱
초원



김진우 목장

김유래 백은진 인재인 최광현 하창수 정희은
손미혜
기도후원 : 이겸손 은민어(중국)



하재훈 목장

정다솔 김하늘 강동혁 이정문 박예원 전예성
고규화 류아영 심예진
기도후원 : 두평 선교사(중국)



이종배 목장

송승욱 정주은 김태형 장준원 김찬양
기도후원 : 하은규 박은진(필리핀)



정호진 목장

이준영 배우영 김효원 김지수 이지형 최성은
성기환 최지우 오예림 김승길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오후예배 13:30 대예배당

청년기도회 월 셋째 주 수요일 20:30
지하 찬양대실

청년부 주일 13:40 / 비전 302호

토요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6:00
대예배당

청소년부 주일 11:00 / 비전 503호

처음 오셨나요?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싱글이 되시려면?

새 생명의 삶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싱글평원
안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주안에
우린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싱글평원
상담

조성호 목사
010.9450.0212

김권수 목사
010.9465.3747

전예리 자매
010.xxxx.xxxx

손민정 사모
010.6391.3737

김권수 목사
010.9465.3747